

■ 전진농업 현장 14 두레버섯농장 대표 이재무 ■



“국제적인 품질 인증 받겠다”

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품질을 인정받는 것은 역시 이 대표가 신중한 버섯 재배를 위한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다.

두레 버섯농장에서는 매일 2kg 60~120상자를 출하한다. 출하는 농협중앙회 창동 하나로 마트에 전량 납품한다. 이곳에서도 두레 버섯농장 제품은 인정한다.

이 대표는 그러나 농산물의 가치가 높다고 한다. 이 대표는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였으며 이들은 SBS 뉴욕지국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과거에 부모님이 왜 농사일을 물려주지 않으셨는지 했는지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며 품질로 승부를 걸어 이제 서서히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

“틀릴 수 없는 길, 풀나게 살자”를 좌우명으로 삼아 농사꾼으로서 한가지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이제 귀농하여 정착했다는 명제를 실천한 것 같다고 한다.

이 대표는 ‘무식해도 용감했다’라는 귀농 성공사례를 발표해 농업진흥청으로부터 원고료도 받았다.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버섯농사에 있어 부업형 농가의 집중적인 출하로 가격 하락폭이 심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전업농 형태의 농장 시스템 구축으로 버섯을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대표는 ‘무식해도 용감했다’라는 귀농 성공사례를 발표해 농업진흥청으로부터 원고료도 받았다.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한번 쓰고 쓰레기장으로 향하는 배지를 재활용하여 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시설을 못해 아쉽다. 다른 지방에서는 이미 배지의 사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합수면 추동리 두레 버섯농장 배지에서 자라고 있는 버섯의 모습이 신선하다. 이재무 대표는 배지를 회전시켜 습기와 골고루 분산되도록 하여 신선한 고품질의 버섯을 출하하고 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1999년1월1일에 고향으로 돌아와 버섯재배에 정열을 바쳐온 두레 버섯농장 이재무(55·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대표를 만났다. 300여명의 재배사에서 버섯은 10일~15일 주기로 생산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버섯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이 대표는 버섯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환경자동조절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습기가 골고루 분산되도록 배지를 회전시키는 것이 포인트다.

이 대표는 버섯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환경자동조절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습기가 골고루 분산되도록 배지를 회전시키는 것이 포인트다.

아산엔지니어링 양질의 자동차 부품 재제조 전문업체



대표 윤은택

천연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내실정에 맞게 산업자원부 산하 국가청정센터지원팀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재활용으로 국토청결과 에너지 절약 등 환경과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제조(RE-MANUFACTURING)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품질이 좋고 나쁜 것은 고객이 먼저 알고 판단 “제대로 만든 제품 제대로 판매”한다는 전략

신제품으로 재 탄생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수명이 다하여 폐기단계에 있는 제품을 회수, 수거하여 완전분해와 세척, 검사, 보수과정을 거쳐 신제품조립공정처럼 재제조과정을 거쳐 기존의 기능과 성능을 살리는 제조과정을 말한다. 새로운 원료나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제품을 위주로 사용해 만들기 때문에 재활용이나 다른 제조업과는 차이가 다르다.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업체인 아산엔지니어링은 제조업체 최초로 품질보증제도 시행으로 고객과 업체들의 신뢰를 받으며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



포천축산업협동조합이 지난 25일 신북면 가재리 254-5와 1필지 부지에서 개최한 육가공공장 착공식에서 양기원 조합장 및 대의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한우고기 생산 축산물 유통감시단 포천백운한우 한창목장 시찰

한국소비자교육원(원장 전성자) 축산물 유통감시단 소속 위원 및 이사진과 서울시내 소비자 등 60여 명이 ‘축종별 생산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포천시를 방문했다.



한국소비자교육원 축산물 유통감시단 소속 위원 및 이사진과 서울시내 소비자 등 60여 명이 ‘축종별 생산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포천시를 방문했다.

안전하고 깨끗한 식육생산 토대 마련

안전하고 깨끗한 식육을 포천축협에서 가공·생산하게 된다. 포천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양기원)은 지난 25일 신북면 가재리 254-5와 1필지 부지에서 육가공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한 식육을 가공하는 사업으로 1천여평의 대지에 가공시설 175평, 저장시설 280평 부대시설 127평 등 총 528평으로 총 공사비는 도비 9억1백만원, 지방비 9억1백만원, 자부담 8억6천8백만원으로 총 26억7천만원이 투입된다. 시공사는 대산종합건설(주)이다.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왕성실 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다.

정상사업자 여부 확인...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왕성실 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산업안전사고 예방

특장차량 핸드그라인딩작업 중 감전사고

비가 오는 날 특장 차량 정비업체 소속 재해자가 우천으로 인해 신체 등이 젖은 상태에서 야외작업장에서 차량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차량 적재함 문짝 하단을 핸드그라인더로 연마작업을 하던 중 핸드그라인더 누전에 의해 감전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상황도

단기 설치를 통해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거나 습윤한 장소에 사용하는 휴대용 전동기계·기구의 전원측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30mA, 동작시간:0.03sec)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